

1976 - 1977  
**梨園**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WASHINGTON D.C. AREA

6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고문

박 경옥  
박 원규  
오 창희  
윤 주덕  
최 제창

## 임원

회장	.....	김 정자
부회장	.....	한 순정
서기	.....	한 문혜
회계	.....	유 연담
사업부	.....	이 도실
사교부	.....	이 춘호
문화부	.....	최 신혜
		김 홍자



## 컨 두 사



봄, 여름, 가을, 겨울 4 계절을 두번 맞게 되고 보니 햇수로 따지면 2년인가 봅니다. 길다면 한없이 길고 짧다면 짧은 그기간 모교를 위하여 또 화부지구 동창회를 위하여 여러가지로 도와 주시고 수고하여 주신 고문, 역대회장, 회원 그리고 임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1976년은 이곳 이화 식구들에게 또 한 기념의 해가 되었으니다. 본교는 생일 90주년을 맞아 큰 행사가 있었고, 미국은 독립 200주년을 맞았고, 워싱턴 지구 동창회는 예년에 없던 이화대학교 국제제단이사회와 그에 따른 EWHA ANNUAL DINNER BANQUET (7TH) 을 이곳 화부에서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와 겹쳐 있었던 BAZZAR 로 BANQUET 은 더욱 다채로웠으며, EWHA 도자기와 T-SHIRTS 를 저희에게 보내 주시기 까지 힘써 주신 총장 선생님, 미술 대학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 Bazaar 에서 나온 \$2,377.00(3월 18일 현재) 은 뉴욕에 있는 이화 국제 제단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성공적인 모임은 저희 "EWHA" 의 힘이 아니었던들 어찌 그리도 아름답게 끝날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화 동산에서 자라고 배우고 온 헤발은 이화의 식구들이 뭉쳤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에도 매년 이화의 식구는 늘 어나고 있으니다. 저희 동창회는 여러분 한분 한분을 환영하고,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원" 6호 발간에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 또 편집 위원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히 감사 드립니다.

1977년 3월 회장 김정자



이화여자대학교

1976. 11. 24

정자에게

입술이 틴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그래도 모교를  
위하여 열심히 뛰노라고 모든 정성을 다했고 성의를 다한  
성과가 그처럼 크게 이루워 졌으니 기뻐하고 위로 받을 일  
인줄 아나이다.

정성이 있어도 바칠곳이 없고 뛰고 싶어도 받아줄 턱전  
이 없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모교가 있으니  
그보다 더큰 자랑이 없는줄 아나이다.

이 선생께서도 여러모로 애써 주신것 감사 하면서

김 옥길

회장님께

1976년 10월 14일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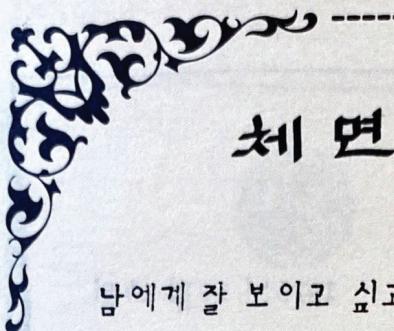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하여 1971년 7월 5일자로 보내주신  
위시통 동창회 장학금 원금 310,000원이 1976년 2월 28일자로  
520,910원이 되고, 1976년 6월 25일에 보내주신 483,000원도  
입금하여 총 액 1,003,910원이 되었읍니다.

멀리 이국에서 모교를 잊지 않으시고 이처럼 따뜻한  
성금을 마련해 주신 위상통 동창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76년도 2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1977년  
도에 지급 하겠으며 장학생 명단과 지급 약은 차후에 알려드리  
겠읍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처장



## 체면

김영기 ('63)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수 있다. 태고로부터 수없는 사람들이 극도의 희생을 하고 힘에 거운 노력을 한것도 어느 정도 그 본능 때문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나들이 갈때에는 옷, 머리, 화장등에 더 마음을 쓰고 손님이 오실때에는 집안 정리를 더 정성껏 한다. 말씨도 남에게는 더 조심이 가기 마련이다. 얼마나 여러번 우리는 외국인에게 한국 안내를 하면서 보통때 눈에 안띄던 길가의 종이 조각을 유감스럽게 눈을 뜨고 보고, 각자기 손님이 오셨을때 가구 위의 먼지를 있는, 없는 변명으로 털어 버리려 했던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에 특히 민감한 것은 곡동 문화권, 특히 우리 민족성의 특징의 하나이다. 특히 흔한 예로, 한국 학생들은 대개 공부 시간에 질문을 안한다. 그렇다고 그만큼 과제에 흥미가 서양 사람보다 더 작은것도 아니요, 못 알아 듣는것도, 호기심이 없는것도 아닐 것이다. 강의를 중단하기 꺼리는 마음, 또 건방지다는 인상을 안 주리는 의식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바보 같은 질문으로 망신을 하는것이 두려워서다. 정말 알고 싶은것이 있을때 한참 생각했다가 강의후 선생님에게 개인으로 가서 물어본다. 공부 시간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느끼는 서양, 특히 미국 학생들 과는 큰 대조가 된다 학교가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할때에도, 못 알아 들이도 못 알아 들었다고 다시 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고개를 끄떡이거나 아주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체면을 차리는 데 있어 특이한 것은 남의 눈이다. 한국에서 흔히 보는 장면으로, 우편국에서 서로 먼저 불치겠다고 약단하는거나, 서로 밀고 닦



치고 타는 버스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각자 기 행동을 바꾸어 짐잖을 부리는 일도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가족끼리 있을 때 차림새나 행동을 산만히 하는 것은 옥각자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체면을 차릴 때 나와 관련시키는 요소가 떠와 장소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의 어떤 일부에 대한 나쁜 기사가 신문에 실렸거나 한국에서 어떤 좋지 못한 경험을 한 외국인의 얘기를 들으면 자신의 일처럼 얼굴이 뜨거워지고 분함을 느낀다. 그리고 문화적인, 혹은 다른 이유로 어쩐지 마음에 안들게 행동하는 듯한 다른 동포를 볼 때 그 혐오감은 이유 없이 지나치게 커진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는 한국인 이지만 타향에서 만날 때 이상한 환영과 알력을 흔이 느끼게 되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외국인과 결혼한 여자가 어머니를 구박하고 학대하여 교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너무 나도 비 한국적인 얘기였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 무슨 사연이 깃들었는지 제 삼자로 알길 없으나 언뜻 머리에 떠 오르는 것은 그의 특이한 결혼이다. 물론 개인의 성격이 큰 이유겠으나, 어머니를 남편보다 더 자기와 일치시켜 남편눈에 맞도록 자꾸 어머니의 가치관과 습관을 바꾸어 보려다가 그랬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즉 어머니를 더 가까이 생각하여 어머니를 잘못 대접했다는 모순성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문화에 다리를 적절 다리를 걸치고 사는 이들은 재치 있는 변호사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중한 이들 사이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면서 알력이 있을 때 더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다. 아무리 "남편은 돌아 누우면 남"이라는 얘기가 있어도 살다보면 나의 한 부분이요, 부모형제는 물론 피로 맷어 졌으니 나와 나의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치관도 곡으로 끌고 나가면 해로울 수도

이동우씨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저의 학생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금으로 지난 1977학년도 제일학기 워싱턴동창회 장학금 지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에육대학 건강교육과 4학년 정진덕 70000원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977년 5월 9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처장 최윤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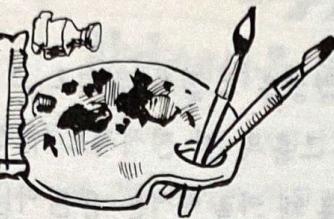
이원자에게  
찬조금을 주신분

오 창희 임 경옥  
윤 주덕 최 제창  
박 재선 이 도영

### 체면 계속

있다. 우리 자신이 냉소적으로 말하는 "김치먹고 이 쑤시는" 경우도 허다하나 체면을 차리려는 근본적인 태도는 비판만 할것도 아니다. 즉, 체면이란 관념은 남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남의 미참하고, 둔하고, 마음에 안드는 여러 가지 조건, 행동을 보기 싫어하는 것 또한 인간의 본능의 하나가 아닌가? 나아가, 남이 안 볼 때도,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근본적 의기의 체면을 차리는 수양이 스스로 필요함을 느끼본다.

## - 전람회 후기 -



한 순정

유난히도 아름답고 밝은 날이면 교실의 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좋은 날 밖에나가 그림을 그려야 할텐데 따분한 교실에 앉아 지루한 강의를 들어야만 하다니 ...." 생각하던 학창 시절을 되살리 복니다. 학교를 끌 마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고 기대 했었습니다. 막상 졸업을 했을때 그 생각과는 달리 히전함을 느껴야 했고,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사무실의 창을 통해 다시 밝은 날을 아까워하곤 했습니다. 미국에 온 후에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새 십여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고 또 그말은 실제로 심각한것이였습니다.

직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일을 하기는 하나, 내것 내창작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이였습니다.

그리다가 미협의 활동으로 갑자기 먼지 않은 화구들이 별을보게 되었을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부풀어온 이 욕심과는 달리 머리와 손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지 않아 여기서 오는 불만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역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는 즐거움이 아닐수 없어 내가 아이의 엄마이고 가정주부라는 과제를 잊어버리고 그림에 열중 하곤 했습니다. 이런때 하나씩 둘씩 생기는 사소한 문제들이 내 신경을 날카롭게 했고, 오래 있었던 공부기간의 영향으로 부족해진 수법을 나무라면서 겨우 몇개의 작품을 준비 했습니다.

미협의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라 가정부인이 대다수를 이루는 이 그룹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 흥사한 체험을 했을 것으로 짐작 합니다.

모두들 각기 다른 환경에서 공부했고 여러가지 다른 분야의 미술을

전시하게 되어 다양성을 느낄수 있었고 그래서 더 흥미로웠다고 느낍니다. 대체적인 평은 이 그룹의 첫 전시회로서 작품이 균등하게 좋았다고 하나, 예술인이 자기 작품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이론에서 뿐이 아니라도 몇사람을 빼고 대다수의 작품에서 방향의 표시를 볼수 있었고 본인역시 방황각에 속함을 실로 하는 바입니다.

작품활동 이라는 것이 하나의 투쟁이고 방황의길 이거늘 한 MAZE 속에서 문을 향해 더듬어 나가는 사람, 혹은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궁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문을 잘찾아 나가야 하는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과 같은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하고 활동을 함으로서 한발씩 어느 방향으로 가까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작품을 만인 앞에 공개했으나 미비한 대로 모두 후원해주고 격려해주어 잘 전시회를 끝내게 할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 주시고, 모두 미국 살림에 바빠서 있고 있던 정서를 다시 일깨워 귀한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도 좋은 방향을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의 이화동창이 이 전시회에 출품했었고 김홍자씨와 유성숙씨 두분 다 미국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시고 좋은 작품을 보여 주셨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아동 미술 공모전에서 많은 작제의 미술가들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한국의 후예중에서 훌륭한 미술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전시회는 이제 끝났고 흥분과 분주함이 한부분 꺼진후,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하는 과제가 또 눈앞에 오고 갑니다.

점심 시간에 사무실에서 이글을 쓰면서 오늘은 밟지도 않은 검은 구름이긴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그림을 그려야 할텐데 ...."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1회 미현전 이래 이회의 동인전이 있었고 필자는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서 개인전도 가졌음.

정 에게



## 한국에서온 편지

요사이는 늘느라고 그려는지 정신이 없어서 가끔 내나이도 한살 정도는 오르락 내리락 한단다. 이름을 쓰다보니까 엉뚱 해져서 이렇게 구구하게 편지를 늘어 놓게 되는데. 네가 편지를 받은 것이 언제쯤인지 어렵잖하게 답장만 못 했다는 기억은 있으나 설마 답장을 두번 쓰는 것은 아닐 헤지? 두번이라도 상관은 없으나 같은 푸념을 늘어놓게 될까봐서 걱정이야. 이 기회에 털어놓는데 언젠가 영이 사진도 똑같은 것을 거의 이개울쯤 사이두고 두장을 보내줘서 덕분에 우리 꼬마들 사진첩에 하나씩 붙여주었지. 나만 늘기는 싫단 말이야. 군이는 그동안 양재과 수료하고 요리사 자격증까지 따고, 지금은 손 편물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어. 사방으로 불려 다니며 옷본 떠주고 말려주고 하느라고 바쁜 나날을 보내기는 하나 하루 속히 그리운 낭군님을 만나 살림살이를 깨가 졸아지도록 해야 할텐데, 친정집에 머으르는 심정도 알아 주어야겠군.

이제는 위로 두 아이들은 3,4학년이 되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늦고 저희대로 학교 재미가 있는 모양인데 나는 집에서 이제 한창 저지르는 꼬마를 데리고 뭉개야하니 기가 차지?

지금은 앞집 보이 후랜드가 낮잠에서 깨어 아ガ를 찾는다고 마실갔는데, 있으면 이편지도 자기가 쓴다고 다 잡아 나꾸고 쓸수 없을꺼야. 기저귀가 젖었을때가 되었는데 얼른 쓰고 갈아주려 가야겠어. 하루에 한번씩은 수퍼 마켓에 가서 과자를 사야하고, (원걸 쫓겨왔구먼. 멀 저질렀는가봐) 큰 아이들보다 먹성이 좀더니 가만이 놀지 못하고 저무도록 기어 올라가고, 잡아 뜯고 난리야 그곳 생활에 젖은 사람이 보면 무척 벼룩없이 기른다고 하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제멋대로야.

외국에 간지 오래된 사람들 한번씩은 다 다녀 가던데, 꼼짝도 안하실꺼야? 더 늘 기전에, 그래도 서로 맞나면 고대로 라고 말들은 하지만 늘 어나는 주름은 할수없지 않아? 이 다음에 기억이 흐려들면서 만나도 "누구더라" 할지 경이면..... 아이구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아빠랑 영이 모두 안녕하시겠지? 모조록 즐거운일 많고 건강해 안녕.

김연진



## 고국에 있는 벗에게



친구 야.

꽃샘 바람이 몇번 다녀간후 이젠 완연한 봄 이구나. 어느 새 마른  
잔디풀을 비집고 이름모를 노란꽃들도 피어났다. 애들은 제철을 만난듯  
종일 밖에서 놀리하구. 우리 꼬마는 그또래 애들과 노는 게 너무 재미  
있는지, 놀다가 물먹으려, 쉬하려, 뛰어들이 왔다가는 금해서 신발도  
꽤 못신고 뛰어나가지.

봄은 대 자연을 움트게하고 애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계절  
인가보다. 그러나 어른들은 희망에 부무는 마음과는 달리, 노곤하게 피  
로를 느끼는 계절이 아닌지.

한국도 지금쯤 같은 봄 기운이리라. 움트는 새싹, 그리고 생기에  
찬 너희 꼬마들 하며 .....

주부인 너는 집단장에 바빠지는 계절일까? 우리도 이젠 꽤 관록  
불은 주부 아니겠니. 자주 펜을 들지 못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자질구  
레한 집안의 분주. 그리고 편지 한장 쓰는데도 큰 엄두를 내야할만큼  
이미 그 방면에 무디어진 살림꾼이 된걸까?

그런 나를 느끼며 또 그런 너를 이해하며 자주 올 편지는 기다리  
지도 못하지만 ..... 아무튼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워지는 고향과 함께, 십여년을 거슬러 올라가 찾아 보고픈 너와의  
우정을 세겨보며 .....

그것의 배경은 항상 이화동산이었지. 지금도 싱싱하게 푸르리, 또  
많은 이화인들의 꿈을 키워줄 그곳은 한창 5월의 축제로 술렁이겠지.

친구야. 너도 펜을 들렴. 그리고 더욱 자랐을 이화의 애기를 들려주렴.  
그리고 행복한 너의 얘기도.

열심히 살아. 그리고 빨리 늙어서 세계일주라도 하는 걸 꼭 이곳에  
들리렴.

우리 모두 늙기전에야 애들 치달거리에 여행꿈끌 틈이 있을 라구.  
역시 한국의 모정은 다 늙어서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참 오랜 희생이 아니  
겠니. 모조록 애기들 잘 키우고 내조 잘하고 ..... 그것이 현모양처  
라지.

나는 언제 한국을 가게 될른지. 그리운 얼굴들. 그리고 이화의 무른  
동산을 맞나고 싶다. 참 " "가 지난달 이곳에 왔지. 자리잡느라 지금 정  
신이 없나봐. 떠나오면 그립 고국을 두고, 그러나 호기심으로 잘들 오는가  
봐. 넓은 땅과 시원스레 벌은 고속도로, 끝없는 잔디밭, 일견 유토피아 같은  
미국은 처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들이지만, 그러나 그 앞선 과학  
문명이나 풍요로움으로 하여 우리를 위압한 그 이름만큼 모든 면에서 본  
보기가 될수는 없는 것 같아.

도덕면에서 정신면에서 결핍된 많은 문제들이 가끔 기름지고 윤택한 표면을  
긁고 상처를 낸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땅.

그건 내가 터어난 땅과 함께 소중한것이 아니겠니. 언젠가 누구에게 말했  
듯이. "나는 미국을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한국을 사랑한다. 엄마를,  
그리고 우리의 모교를 사랑하듯 그런 정도로."

멀티 있어 더욱 그리운 친구야, 오늘은 이만 안녕히 .

김 회수 (불문과, 66년 졸)

# 친애하는 동창님들께

1976년 3월 29일 월요일 오후

모두들 안녕하시겠지요. 날씨가 춘삼월이라 따스해졌습니다. 저는 제 고향 한국을 놀여서 떠나 미국으로 건너와 살듯이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유랑민 같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는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지 이제 겨우 석 달. 관광객 같이 어색하고 조금 들뜬 기분으로 강산구경 하다가도 문득 방금 떠나온 위상頓시가, 여러분들이 다시 뵙고 싶어 집니다. 그려하면 쓸 땐 없이 "이별이란 달콤한 슬픔이다" 라던 쇄스피어라는 이의 간지리운 문구도 그럴듯이 생각되고 또 현존한 미 작가 투르만 카포테가 한말도 떠오릅니다. "HOME IS WHERE MY FRIENDS ARE" ..... 대개 이런 말이었던 것 같이 기억됩니다. 정들자 이별이라 여러분 맞나봅자 마자 떠나왔고, 참으로 뵙고 싶어 집니다. 언제 다시 만나 뵙을 수 있을 뿐지요!

이만 끝두리는 하고.

과연 이곳은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책자에 의하면 'HEIDELBERG IS THE SYMBOL OF GERMAN ROMANTICISM' 이고 "GATEWAY TO THE SOUTH OF GERMANY" 라고 써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말하면 유명한 유원지가 있는 독일의 BLACK FOREST 가 있는 BARVARIA 지방을 야기 합니다. 이 별로 크지 않은 도시는 네카라는 낭만적인 강을 끼고 계곡을 따라 양편에 중세기식의 집들로 고색이 창연하고 성령고회니, 네카강을 건너는 오래된 다리 하며 모두가 오래되고 아름다우며 그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에 옛날 이곳을 다스리던 왕이 살던 유명한 고성이 반은 헐린채 장엄하게 서있었습니다. 영화 "STUDENT PRINCE" 생각나시지요?(마리오란자와 안부라이스가 주연하는) 그곳

에 나오는 맥주집이 있는 시내에는 아직도 옛날 전차가 다니고, 명동에 찻집이 많듯이 이곳에는 맥주집이 수많고, 고풍으로 근사하게 장식된 레스토랑들이, 카페들이 있음을니다. 자갈로 무늬진 포장된 쪽은길들, 확분들이 앙증스럽게 놓인 레이스 커튼의 작은 유리창들. 옛 것 그대로 대들보나 나무 기둥이 들어난 천정 아래 무쇠등으로 장식된 레스토랑에 정장을 한 고객이 조용히 식사하는가 하면 역시 그런식의 방안에 신식의 부루진에다 샤크 차림의 젊은연인들이 활짝지껄한 주워에 아랑곳없이 서로만의 정담에 이마를 맞대고 앉아, 먹고 마시고 하는 곳이 있음을니다. 우리 옛날 즐겨듣고 하던 "작은꽃"이나 "아 목동아"가 향수적으로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식점이 있는 반면 육중한 벽들과 STAINGLASS로 근엄하게 채색된 디스코택크에서 트는 최신형 젊은 유직은 벽력같이 길밖에 까지 들썩나와지금이 어느때인가를 알게 줍니다. 참으로 고풍과 모던함의 두 요소가 고요히 조화되어 아름다운 도시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곳이 몇번의 전쟁의 화를 면하고 보존된 유래는 세계제2차대전 때는 미국 폭격기들이 일부러 이 로맨틱한 도시를 보존하자는 의도에서 폭격을 안했다고 합니다.(이건 제가 몇일전 읽어본 RUDOLF W. LEOUHARDT라는 독일인 기자가 쓴 THIS GERMANY라는 책에서 인용합니다) 하나더 특기할건 이 남쪽 하이델베그에 아메리카 타운이 있고 유럽에 주둔한 미국군 총 본부가 있음을니다. 불란서의 파리여, 스위스의 알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을 한나절 안에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지요.

밤이되면 하이델베그의 고성과 그 정원엔 조명등이 비쳐져 극적이고 무섭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불빛에 반사된 네카강 물결이 바람에 살색없이 출렁거리고 어디서 앉든가 막조가 두마리 그림같이 물위를 가끄러져 가던 어느날 밤 산보를 나갔다가 좁은 자갈 골목길에 서서 무심코 올라다 보니 쿠족히 솟은 지붕들 사이로 하늘이 있고 조각 구름들과 둥근달이 경주하

듯이 달려가고 있었을때 ..... 그때 그 옛날 올래 구경했던 영화 "싱고 아라" 속에서 보던것 같아 비몽사몽 간인듯 깊은 순간이여서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읍니다.

아마 이런 꿈 얘기는 다음 기회에 다하기로 하고 현실적인 얘기해야 겠어요. 뜻있는 동창회의 일원이 됬던것 만도 영광인데 일원의 한자리를 업고 일도 않고 이렇게 편안히 달아나와 있어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자 동장님과 문학부 맡고 책임감과 자격 여부 의심에 주저함과 그러나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던건데, 고만 실현은 꿈도 시작 못하고 여러분께 수고 하시게 한데에 사과드립니다.

하고 깊은 말은 많으나 어찌 다 조리있게 말할수 없고 다만 이렇게 멀리 떠나와 미국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제가 비록, 세상 여러군데 곳곳 이는 못보았어도) 이게 또 하나 인생 수업이라고 할수 있을 뿐지요. 제가 듣기에 독일인은 예의 바르고 정규적이고 엄하고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역시 21세기타 젊은 세대니 장발족이니 하나 미국인들 같이 떠들썩하게 늦도록 모여서 파티를 하거나 하는일이 없다고 듣습니다. 몇일전 신문에 "AMERICAN DREAM '76"이라는 제목 아래 두 기자가 미국을 낙관적인 면과 비관적인 면으로 왈가왈부 하던 기사가 생각납니다. 둘다 일리가 있던 말 같았는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미국과 미국인들이 제일이다" 싶습니다 그들의 관대성과 아량성을 말합니다. 제가 사대주의자로 보이기도 하겠으나 아마 저의 이런 견해에는 우리가 어쩔수 없이 미 대륙과 밀접한 관계 아래 우리의 삶이 그곳에 연결해 있는고로 자신을 위한 위안으로 다짐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제가 이 서한을 끝마치기 전에 급변할지도 모르지 만요. 자유롭게 숨쉬고 사는 현재가 불행중 다행이라 하고 싶습니다. 잠깐이니마 이렇게 글을 올리는 동안 서로 맘을 주고 받는 것 같은 기분이라 좋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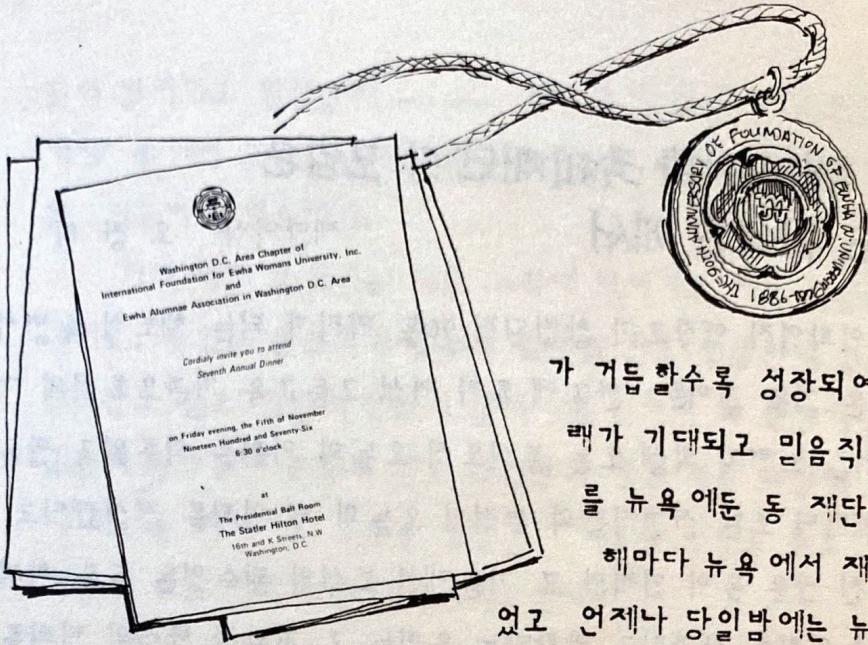
동창 신희수 올림

# 1976년도 재미 이화 국제재단의 모임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재단이사 오창희

1976년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창립된지 90돐 마지막이 되는 해로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온 한국에 특히 여성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개척의 길은 정성어린 노력과 희생 또는 봉사로서 오늘의 이화를 이루었고 많은 선인들의 앞을 내려다 보는 선견지명의 결정이 오늘의 대 이화를 형성했다고 본다. 땅속에 묻친 많은 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보석이 될수 있는 돌은 히귀한 것이다. 언제나 이화를 생각하고 말할때는 우리는 고 김활란 박사의 이화를 위한 공적은 물론 그의 생전의 최종 사업으로 영원한 이화의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 놓은 재미이화 재단을 말하지 않을수 없고 그의 생전 그의 인격에 감화된 인사들이 오늘 이화 재미재단의 이사진을 이루어 이화의 뜻을 밟들고 있다 이제 이 재단은 25명의 한미 양국의 인사들로서 이루 어진 비영리 단체로써 해





가 거듭 할수록 성장되어 가고 있어 그 장  
래가 기대되고 믿음직한 바 크다. 본부  
를 뉴욕에둔 동 재단은 과거 6년 동안  
해마다 뉴욕에서 재단 이사회를 갖  
었고 언제나 당일밤에는 뉴욕 지역에 계신  
이화 동창들의 마련되는 연회가 있고 당야

에는 김옥길 총장의 보고 연설과 이화를 위하여 수고하신 인사에게 표창하는  
등의 순서가 있었다. 그래서 6년 동안 계속 해서 뉴욕 부근에 계신 이화동창 여러분과 유지들의 협조와 수고가 이만 저만이 아니였다.

1976년은 미국의 200년제로 직히는 해로서 미국의 선교 백년으로서 이화  
가 창립 90주년을 맞는 해요, 또 재미 이화국제 재단도 일곱돌 마지를 하게되  
는 해 임으로 이해의 이사회는 미국의 수도 와싱턴에서 가지는 것이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일치 가결로서 수도 와싱턴으로 작정이 되었다. 이뜻을 연락  
받은 이화대학 동창회 화부지구 동창회 임원 제씨와 이화 재미국제재단 화부지  
구 챕터 임원 여러분들은 밤늦게 까지 모임을 갖고 연락으로 가진 이사회 당야를  
뜻있게 하기 위하여 그 진행책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아 놀랄만한 하로밤  
의 성대한 뻥커운을 가졌다.

장소는 수도 와싱턴 중앙가에 위치한 스탠틀러 힐튼 호텔의 이층 회의  
실에서 종일 이사회를 가졌고 저녁은 이들의 피곤을 풀 어드리기 위한 또는  
이화대학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와 이화 재미국제재단의 일곱돌 마지  
연회가 와싱턴 부근에 산재해 계신 이화 동창 가족과 한미 양국의 유지들이  
만장한 가운데 푸레시텐션 홀에서 개최되었다.(사진 참조) 정각에 재단이사

장 및 철 박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컨트 대학 총장의 개회 기도와 오창희 이사의 환영인사가 있은 후 이화학당 재단 때로 부터 오랫동안 이화를 위하여 공로가 큰 막콜리얼 박사에게 공로표창 패를 증정한 후 뜻 깊은 김옥길 총장님의 고연 설은 청중으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어리게 하였다. 특별 음악 순서는 이화의 90주년을 축하하는 노래, "아름다운 이화"의 가사를 이화대학을 졸업하신 대 선배 이순영씨가 지었고, 작곡도 (별지참조) 졸업하신 강서라 씨를 통하여 음악대학 졸업생 오부성양이 했고, 또한 노래를 부른 이도 이화를 졸업한 홍종옥 양이 불러 이화가 아니면 불가능 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의무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믿는다.

### 1.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김옥길 총장의 감격의 눈물 어린 보고란 지금으로 부터 학를 거듭 해 올 라가 84년 전이 되는 1893년에 미국으로 부터 한국의 여성 고등 교육을 위하여 찾 아온 25세의 젊은 미혼 처녀 푸라이 선생의 이야기다. 28년 동안 그는 이화를 위하여 몸을 바쳤다.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기 바로전 1907년으로부터 1921년 까지 14년 동안 이화학당장으로 한국이 수난을 당하는 때에 그는 이화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우렸다. 이화 90주년을 당하여 아름다운 이화 동산에 그의 흉상을 세우고 그 제막식에는 그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로부터 그 족하 딸인 미세스 뿌래들리씨를 초청하여 제막식을 갖고, 영원히 그를 기념케 하였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뒤를 이은 월터 교장, 아편설라 교장, 김활란 총장이 이전 고인이 되였고, 그 시절에 함께 일보시든 여러 선생님들도 가시였다. 그러나 그 심은 씨는 죽지 않고 살아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지금도 맺고 있는 것이다. 그 열매 중에 한분 이신 김옥길 총장은 금번 재미국 제재단 이사회에 출석차 와싱톤으로 오시는 도중 모르는 길을 찾아 푸라이 선생이 태어나신 고향 오하이오주를 찾아 뜻밖에 찾아온 김 총장을 맞난 뿌래들리 부인을 깜작 놀라게 할뿐 아니라 자기가 푸라이 선생을 성묘차 온뜻을 설명하여 주면서 선생의 묘지로 안내하여 주기

를 청했던 것이다. 감격한 족 하딸은 세상에 이런 고마운 인간이 왔는가 하여 사실 자기도 잘 모르는 푸라이 선생의 묘지를 찾아 아름다운 꽃 한포리를 선생께 안겨드리고 간절하고도 감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오신 것이다. 얼마나 이화는 물론 한국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해주신 김총장께 자연히 머리가 숙여질뿐만 아니라 그 성의는 보통이 아니라 느껴진다. 이젠 그 족 하딸도 분명히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일이 되었을뿐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이야기 하고 이화를 이야기 할것이며 이화도 영원히 푸라이 선생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사진은 이화 동산에 세워진 푸라이 선생 흉상)

## 2.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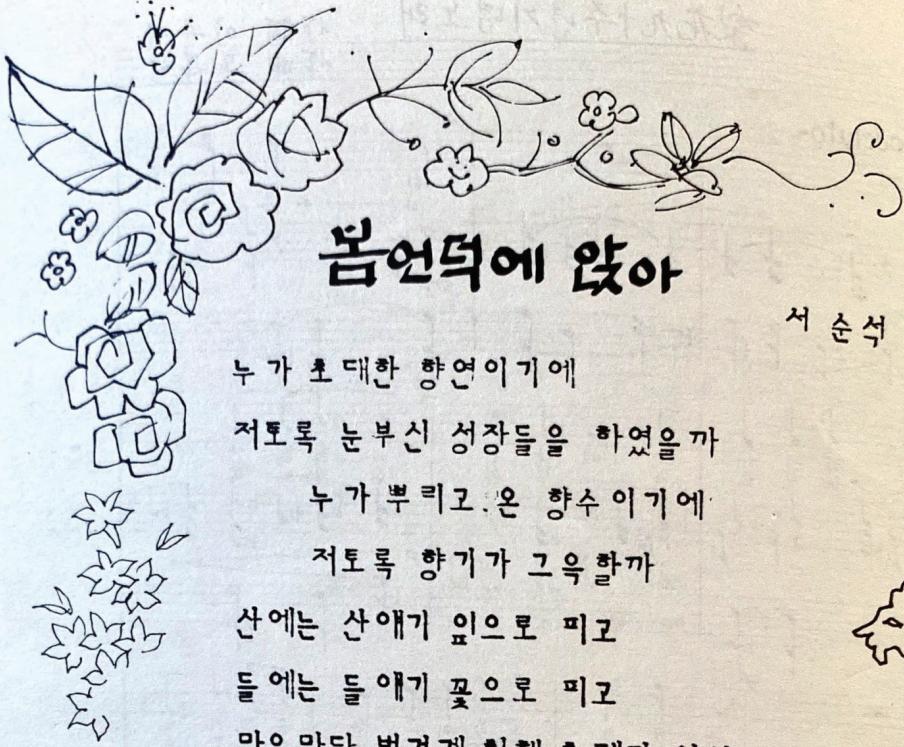
와싱톤 지역 이화 동창들의 이 축하의 밤을 위하여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희생한 수고는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시간과 몸을 바쳐 이 모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바친 수고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화여자 대학의 제 10차 10년 발전 계획을 위하여 그들은 3000여불(미화)을 몽아 재미국제재단 본부로 송금하였다. 과거 6년 동안 한해도 빼지 않고 나는 이사회에 출석은 물론 저녁 연회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였다. 지난간 6년 동안도 가족적인 기분으로 아담한 모임들을 가졌으나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수부 와싱톤에서 몽인 어느 몽임 보다도 가장 아름다웠고, 절찬했고, 종교적이고 희생적인 발은 드물게 보는 몽임이였다.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고 이 일에는 비단 졸업생뿐 아니라 교포유지 제위의 이화를 위한 희생과 협조에 이사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이화는 한국의 여성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한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매고 나갈 인재들을 육성할수 있도록 만들기에 계속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빌며 이번 대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분 위에 신의 축복이 더욱 크시기를 빌면서 아울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1977년 3월 1일

梨花九十주년 기념 노래 作詞 이순영  
作曲 오부성

Moderato

한 화 차 배 립 엔 피 여 날 는 이상 화 풍 살 험 향 기 친 도 련 그 푸 립 키 커 흐 순 결 턱 키 도 은 지 하 없 나 어 꽃 미 이 질 흘 스 승 흡 으 기 를 우 꽂 리 들 흘 키 그 우 신 매 가 우 리 슴 조 예 죽 봉 착 오 험 머 으 로 영 매 난 물 회 지 주 차 감 빛 으



## 봄언덕에 앉아

서순석

누가 초대한 향연이기에  
저토록 눈부신 성장들을 하였을까  
누가 뿌리고 온 향수이기에  
저토록 향기가 그윽할까  
산에는 산애기 잎으로 피고  
들에는 들애기 꽃으로 피고  
마을마다 벌겋게 쑥해 축제가 익어 가는데.....  
나는 초대권도 파아트 너도 없이  
대낮 부터 연회에 홀로 나와 앉아  
풀 피리 부는 목동이 되어 본다  
바람은 간지럽게 나를 놀리고  
마음은 넘실 잔디 이랑을 따라 국경을 넘나든다  
나는 드디어 거기 눈감고 누워  
봄을 껴안는다 너와 숨쉰다  
꽃술을 마시며 초록을 애무한다  
삶의 불꽃으로 타고 있는 황홀에 흐느낀다  
꽃이 피는 사월 꽃의 전시장에서  
잎이 여는 오월 잎의 젊음 속에서  
나는 도망간 나의 조각들을 달래어 다시잡고  
너를 읊미한 나의 시간에 감사하며 손을 모은다





## 시인의 모퉁이

최신례

파리를 미술의 도시라고 한다면, 런던은 단연코 문학의 도시라고 생각되는 것이 나의 인상이다. 그곳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인상 부터가 금시 시를 읊을 것 같은, 심각하면서도 드라마틱하게 보였다. 그들의 밝으레한 얼굴은 아름다울 만큼 귀티가 나오고, 책속에 나오는 인물들 같은 모습을 한데 놀라울 정도로 영국적이다.

특히 런던에서도 WESTMINSTER ABBEY 를 좋아했다. 이 사원은 최근엔 종교적인 행사이에는 쓰여지지 않지만 1066년 이래 전통적으로 대관식 교회로 쓰여진다. 앤 공주가 결혼식을 올린 곳으로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사원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본당의 천정의 아름다움은 나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대체로 유럽의 유명한 사원들은 그 건축 양식이나 사원안의 장치의 예술적인 가치 때문에 더욱 유명한 줄 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원이 웅장하고, 묵직하면서 어딘지 컹컹하게 생각이 되는데 비해 이 사원은 천정의 우하한 대리석의 선들이 화사하게 깎여져 구름으로 구름을 잡아 이어 놓은 것 같이 밝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ABBEY 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천정에만 있었던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큰 관심은 "시인의 모퉁이" 란곳이다.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시인들, 작가들의 기념비가 모여있는 곳이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읽어가며 난 숨도 제대로 쉴수 없는 긴장과 흥분을 느꼈다. CHAUSER, KEATS, SHELLY, TENNYSON 등등 .....

그곳에서 난 그들의 대화를 듣는 듯 했다 꼭 그들을 만난것과 같은 짜릿한 연민 조차 느꼈다. 그러면 그들의 시와 글을 더듬어 본다. 여기 TENNYSON 이 사랑 하던 친구를 기억하여 쓴 구절을 생각해 본다.



## 제이세를 위한 한국교육



이동우

와싱톤 지역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말과 문화를 가르쳐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말과 거름이 되어 주겠군 하는데 그 목적의 있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이머니로서 한 여성으로서 또한 한교포로서 드리고자 하는 심정이 더욱 강합니다.

몇년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때 누가 제게 "왜 미국에 왔느냐?"고 물었을땐 항상 분명하고 투철한 대답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 보다 많은 것 이 훨씬 발달하고, 좋은 기회가 많은 이 나라에서 내 귀한 자식들에게 좀 더 훌륭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 나보다 몇배 나은 사람으로 키워보고 싶은 의도"에서 왔었읍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하루 속히 영어를 익히고



### 시인의 모퉁이 계속

He is not here but far away  
The noise of life begin again  
And ghastly through the drizzling rain  
On the bold street breaks the blank day

이들의 친구들은 얼마나 흥복한 사람들 이였나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시인 자신도 자기의 표현을 친구와 대화로 마냥 엮어 나갈수 있었다는 향복 했을 것이다. 그들의 문학, 그들의 우정, 그들의 이정,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환경들을 더 부각시킨다. 한없이 현실을 잊고 그곳에 서있노라니 나도 그들과 대화를 하는것 같은 착각을 하며 첫사랑을 하는 소녀같이 가슴을 두근 거렸다. BYRON, DICKINS, BROWNING, 계속 중얼중얼 놀이하면서 내가 안다는 게 얼마나 빈약한가를 느끼며 스스로 부끄러워 졌다. Abbey 를 나오는 발길은 허공중을 짚고 현실은 안개에 덮인양 내 눈앞에 들어오지 않으며 난 마냥 몽롱해 있었다.

이곳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기에 흠 흠 하였습니다. 그 런던중 곧 얼마후 아이들이 영어를 익히고 또한 영어로 생활하게 되다보니 자연히 한국 말을 잊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어 안타깝게 여기던 무력 다행이 한국 학교가 개교를 하게되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가 여기에 생겼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였습니다.

"토요일에 놀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한글은 배워서 무엇 하느냐?"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큰 문제란 한국 학교 교육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낚득시키는 일이였습니다. 아마 교포 여러분들께서도 저와같은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믿읍니다. 하루는 당시 국민학교 5학년 짜리를 앞에 앉혀놓고 이러한 예를 들었을입니다. "네가 다음에 커울때 네가 지나가는 것을 본 한 미국 사람이 너를 미국 사람으로 보겠느냐? 혹은 동양사람 즉 한국 사람으로 보겠느냐?"고 물었을입니다. 아이는 선뜻 대답하기를 "물론 동양사람이죠!" 이유인즉 제가 동양사람으로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였습니다. "네가 한국 사람인것을 안 그 미국 사람이 너와 한국에 관한 지식을 주고 받고자 하였을때 네가 한국에 관한 문화나 역사는 전연 모를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전연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미국 사람이 너를 정말로 정신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완전히 균형잡힌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하였더니 자기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그 땐에 외국 학교에 가야할 이유를 더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위하여 미국에 왔다고 하는 우리들이 부모 자신들을 위한 위안과 오락에는 시간과 경비를 아끼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들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를 저는 이 아침에 하나의 어머니로서 반성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 "파문" (윤원호 선생님의 위싱톤 방문)

한 순정

고색이 창연한 건물의 한구석 창가에 네 작은 사무실이 있고, 비좁은 속에서도 네 드나들만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초로 둘러차 있습니다. 어떤이는 밀림이라고 말한적도 있고, 여기서 광고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지도 벌써 4년째입니다. 처음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의 불안과 비상시에 대한 공포는 이제 다 없어지고 매일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볼 티모어 시내 한복판의 모든 흥분과 사고와 소음, 그리고 Sale 이 온갖 일들은 다 한두 불락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흥미 있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하게끔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초의 어느날 김정자씨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윤원호 선생님께서 위싱تون에 오셨고 이화 졸업생들을 만나시겠습니다.

하단일을 급히 끌 마치고 집에 돌 아와 식구들 먹을 저녁을 준비해 놓고 위싱頓을 향하여 차를 몰기 시작했고, 옛 스승님을 만나러 간다는 걸 생각할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껴옵니다.

악수로 인사를 했습니다. 14년만에 맞나본 선생님은 그간 많이 늙으셨다고 느겼습니다. 국문과 교수 이신 윤 교수님이 외국 여행을 하실 기회를 상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뜻밖의 재회는 꿈같이 반가웠습니다.

나는 부산의 피난 당시부터 중, 고등 학교를 걸쳐서 선생님께 배웠을뿐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해 우리와 같이 이화대학에 오셔서 한학기도 견느지 않은채 계속해서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오랜 세월의 고난을 함께하신 선생님과 우리는 정말 떼문은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신 선생님은 걸으로 많은걸 표현하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정은 깊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자리에 앉아 있노라니 철없던 엉뚱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다시

소녀 시절로 돌 아간 것 같은 착각을 느껴옵니다.

1955년 이래에 이제까지 국문학과에 교편을 잡아오신 윤교수님은 이화대학으로 부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외국 농촌을 시찰하러 오신거였습니다. 우리의 재학당시 부터 농촌 계몽 운동에 뜻을 두시고 여름방학이면 으레 학생들 데리고 농촌에 머물면서 계몽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이 운동이 이화대학에서는 정규학과로서 등장하게까지 이르렀고 교실에서의 이론과 함께 두주일 농촌 실습까지 합하여 입체적인 과목을 구상하셨고 총장선생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오늘에 까지 이르게 된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도시에서 좋은 환경으로 편안하게 대학에 다니는 이대학생들로서는 이제까지 모르고 살아온 농촌의 생활이란 과연 어떤것이냐?를 참으로 알게되는 좋은 기회이며, 농촌의 사람들로서는 계몽의 기회와 함께 도움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이런 산고속으로 부터 생활관이 달라진 학생들의 부모들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해 여름 방학동안 약22마을에 학생들을 내보내시고 일일히 순회하시고 돌보신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그 예워신 체구로 보아서는 그런 정력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는 의문을 하지 않을수 없지만 그것은 선생님의 정신력이고, 기독교 정신이라고 봅니다.

9월초에 서울을 출발 미국 서부 부터 시작하여 중서부를 거쳐서 위싱턴에 오시기까지 많은 농촌을 시찰하셨고 한국의 농촌에서 필요한 배울만한 것이 있는가를 연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농중에도 소농인 농부들은 한국에서의 대지주 보다도 더큰 땅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막대한 농기구와 좋은 조건이, 한국의 농촌에서 이용할만한 것을 찾지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도착하시기 까지는 가는 곳마다 졸업생들이 선생님을 모셨고 안내해 드렸다고 합니다. 다음날에는 영국으로 떠나실 것이고 구라파의 몇나라를 보신후 나머지 3개월은 농촌의 왕국인 덴마크로 가서 많이 연구를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한자리에 몰였던 동창생 중에는 제학당시 선생님을 도와 농촌 계몽운동에 힘썼고, 졸업후 미국에 오기까지도 일하였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는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는 중이며 학위를 받으면 귀국해서 다시 농촌 계몽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후에는 이영숙씨 댁에 가서 밤 늦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날의 출근을 위해서 자정이나 되어 선생님께 작별을 하였습니다. 콜럼비아의 집에까지 오는 길에는 거의 차가 없이 고요했으니다. 내눈에는 다시 형언 할수없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으니다. 이튿날 아침 출근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나 끝일줄 모르는 눈물로 지장이 있었고 염려하는 동료들이 괜찮으냐고 질문하는 것이었으니다. 이 눈물의 근원을 마음속으로 분석해 보았으니다. 서울을 떠나온후 십여년간 아직 한번도 돌아가볼 기회가 없었던 나에게 이곳은 제2의 고향이며 네 할머니께서 물 헌 곳이고, 네 일가가 있고, 많은 친구들 틈에서 외롭지 않다고 생각해왔던 터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선생님을 만나뵙고 보니 조용했던 내 마음에는 파문이 일기 시작했고 밀에 깊이 갈아앉아 있던 모든 추억의 앙금이 떠 올라와 이런 눈물의 총수를 느끼게 된것이었으니다. 윤 선생님은 내 마음의 본향이었던 것이었으니다. 선생님의 숭고하신 정신과 봉사, 그리고 묵묵한 실천은 우리의 지침이되고 선생님의 여유 모습이 지난 십여년간 저버린 시간을 일깨워주시고 나를 꿈에서 현실로 인도해 주신것이었으니다.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사람을 한분을 찾는다면 그분은 바로 윤 선생님이라고 대답할수 있읍니다.

눈물 때문에 일을 못한 그날 오전중에 사무실에 앉아서 볼티모어의 내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기위해 몇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결국 윤 교수님의 워싱턴 방문을 알려준 김정자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했으니다. 이런 기회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 • 동창회 행사보고 • .....

- 1975년 10월 4일 첫 임원회의 모임(김정자씨 댁)  
 1975년 11월 11일 총장선생님 환영회(동 낙식당)  
 1976년 2월 26일 이희 임원회(김정자씨 댁)  
 1976년 4월 2일 이원자지 주 비자 임원 모임(김종자씨 댁)  
 1976년 5월 9일 국제재단 이사회 디너 준 비워원 모임(김정자씨 댁)  
 1976년 5월 15일 낸차 총회 겸 야유회(카다락 마크)  
 1976년 9월 5일 제이차 이화뱅크을 위한 준 비임원회(이동우 씨 댁)  
 1976년 11월 2일 총장선생님 환영 파티(김정자씨 댁)  
 1976년 11월 5일 이화뱅크 제7차 국제재단 이사회 총회  
     (스택틀 러 힐튼 호텔)  
 1976년 11월 5일 현, 구 임원의 총장선생님 환영 파티(권경주 씨 댁)  
 1977년 5월 22일 이원자지 편집(한순정씨 댁)  
 1977년 5월 25일 전임회장단과 현임원 회의(도교식당)  
 1977년 6월 3일 총회 예정(김정자씨 댁)

**편집후기**



경기는 이 기는데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에 뜻이 있듯이 우리 이원도  
 얼마나 훌륭한 책을 내느냐 보다도  
 발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편집을 하였으니다.  
 성과는 독자 여러분의 평가여하에 맡깁  
 니다.

순